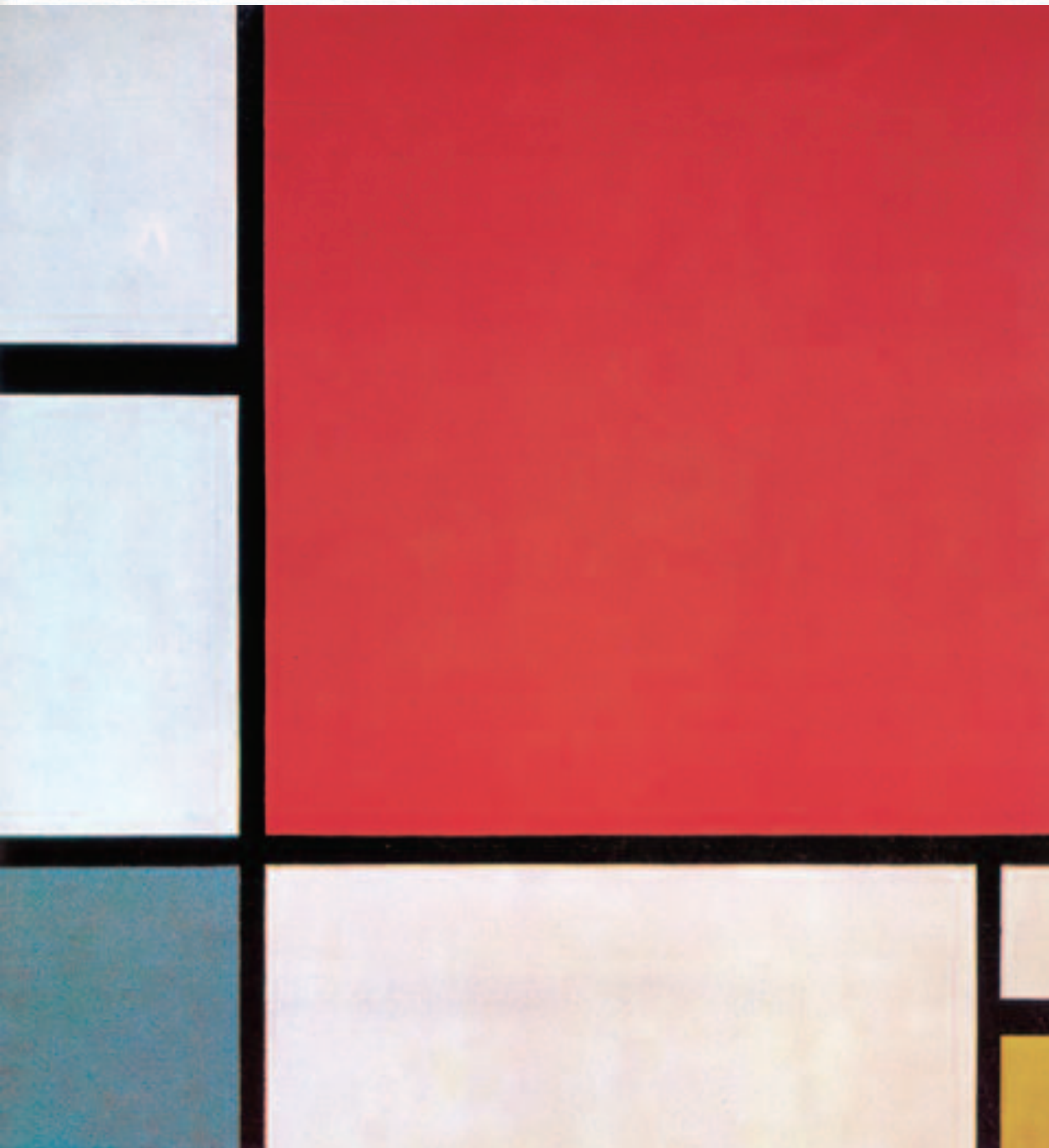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2014

5

www.ucac.or.kr



미술교육 프로그램

동·서양 디지털 미술전

2014. 5. 2(금)~5. 9(금), 8일간 | 제1전시장 |

문화예술회관은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서양 디지털 미술전」을 제1전시장에서 마련한다. 고대시대부터 20세기의 현대미술까지 동·서양 미술사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디지털 미디어로 복제한 작품 총 80점과 DVD영상 130컷을 선보이는데 관람객이 전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주요 작품을 감상하며 동·서양미술사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비교하며 정리할 수 있는 흥미롭고 유익한 교육적인 기능을 강조한 전시라고 말할 수 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C o n t e n t s



06

기획공연

- _ 스위트 콘서트
- _ 모닝 콘서트

시립예술단 공연

- _ 시립교향악단 『가곡과 아리아의 밤』
- _ 시립교향악단 『고전으로의 열정』
- _ 시립합창단 칸타타 『구미호』
- _ 시립무용단 『타타타 II』



16

기획전시

- _ 올해의 작가 개인전 『5월의 작가 김이란展』
- _ 미술교육 프로그램 『동·서양 디지털 미술전』

예술을 말하다

- _ 예술축제를 찾아서
- _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 _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 _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2)



30

특별기획

- _ 2014 울산시립예술단 상설공연
『Art in Cinema』

함께하는 삶

- _ 예술전문도서관 개관

공연·전시가이드

- _ 5월의 공연·전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4년 5월호

통권 174호

발행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
T. 052)227-3884 <http://www.ucac.or.kr>

발행인 이형조

편집인 안종철

기획·편집 박용하·이미경

편집 박용운, 시미정, 권혁민, 김내영

디자인·제작 필리아 T. 052)272-3679

2014년 홍지민의 “스위트콘서트”

울산을 달콤하게 만들었던 “스위트콘서트”

2014년에 접어들어 벌써 시즌7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5년간 진행되었던 스위트콘서트는 뮤지컬 배우 백재현, 강효성, 김선영, 홍지민, 김호영, 최정원 등 쟁쟁한 스타급 뮤지컬 배우들이 거쳐간 울산문화예술회관의 대표적인 상설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2014년 스위트콘서트는 지난 공연에서 좋은 반응으로 인기를 모았던 홍지민이 사회, 뮤지컬계의 악동 “김호영”이 메인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기존의 뮤지컬 갈라콘서트의 컨셉에서 보다 확장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하여 성악가, 비보이팀이 합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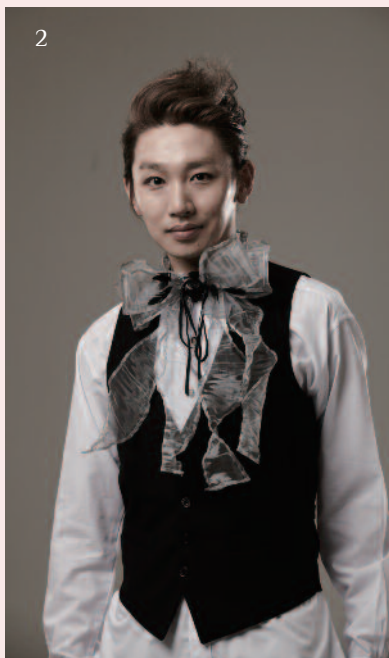
뮤지컬배우들과 성악가, 그리고 비보이가 함께 만드는 어버이날 특별 스위트콘서트는 울산시민들에게 유쾌한 5월의 문화나들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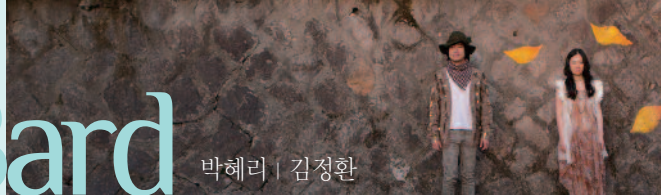
홍지민의 “스위트콘서트”

- 1_ TS아트컴퍼니 비보이
- 2_ 김호영 뮤지컬 배우
- 3_ 문익환 성악가



Performance Guide

2014. 5. 8(목) 오후 8시 | 전석 2만원(회원 30%, 단체(10매 이상) 2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출연 홍지민(사회), 김호영, 문익환, TS아트컴퍼니



모닝콘서트 세계음악기행 그 세 번째 이야기

에메랄드 빛 전원 아일랜드

Bard

아일랜드의 전통음악과 서정적인 포크의 감수성을 결합한 사운드를 바탕으로,
‘노래하는 음유시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사색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음악을 들려주는 혼성 2인조 밴드

주부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울산문화예술회관의 상설기획공연인 11시 모닝콘서트가 세계음악기행 시리즈 그 세 번째 순서로 오는 5월 27일 오전 11시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산과 강,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져 어디나 할 것 없이 에메랄드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전원의 나라 아일랜드. 종종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되기도 한다. 전통을 중시하는 아일랜드의 특색 있는 음악을 아일랜드를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민속악기로 연주하는 퓨전 밴드 “바드”가 들려준다. 문학과 음악 그리고 춤을 좋아하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이야기와 아이리시 뮤직이 함께 어우러지는 기분 좋은 콘서트다.

춤추는 바람을 따라 노래하는 여행자 같은 밴드 바드(Bard)는 ‘한국 최초의 에스닉 퓨전 밴드’로 널리 알려진 ‘두번째달’의 핵심 멤버이자 정원영 밴드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박혜리(아코디언, 아이리시 휘슬, 아이리시 플룻, 보컬), 서정성 넘치는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쿠스틱 밴드 ‘미씽 아일랜드(Missing Island)’ 출신인 김정환(어쿠스틱 기타, 만도린, 바우린, 베조, 보컬)으로 구성된 아이리시 포크 밴드이다. 아일랜드의 전통음악과 서정적인 포크의 감수성을 결합한 사운드를 바탕으로, ‘노래하는 음유시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사색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음악을 들려주는 혼성 2인조 밴드다. 낯설고 새로운 ‘아이리시 포크 밴드’로서 탄탄한 마니아층의 지지를 얻으면서 박혜리, 김정환을 주축으로 바이올린 연주자 윤종수, 퍼커션 연주자 이수혁이 합류해 4인조 멤버로 활동을 시작했다. 2010년 정규 1집 <Bard>를 발매, 2013년 2집 <Road To Road>를 발매하고 아일랜드 전통음악과 서정적인 포크의 감수성이 충만한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한편, 오는 6월 24일 네 번째 세계음악기행은 “희망관 영광의 나라 영국”편을 해설가 류태형씨와 지클레프 앙상블이 출연한다.

Performance Guide

2014. 5. 27(화)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문의 울산문화예술회관 누리집(홈페이지 www.ucac.or.kr)

입장료 전석 7천원(회원 30%, 단체 20%)



교향악단 특별기획

가곡과 아리아의 밤

아름다운 우리 가곡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를 한자리에~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수준 높은 연주력과 성악가 6인이 꾸미는 감동의 무대!

Cast



객원지휘 김덕기

서울대학교 지휘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덕기는 오페라에 대한 탁월한 연주와 해석력을 보여주는 지휘자로, 국립오페라와 서울시립오페라,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 발레단 등에서 수십편의 작품을 지휘 하였으며, 유니버설 발레단과는 호두까기 인형, 그리스 테살로니키 국립극장에서 지휘하여 연출가, 성악가 등 오페라와 발레 등 무대 예술제작에 관여하는 전문가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고 있는 지휘자이다. 오페라 <베르테르>, <페도라>, <포스카리 家の 두사람>등을 한국 초연하였고, 대한민국오페라 50주년 및 60주년 기념 콘서트, 서울시오페라단의 '베르디 Big 5시리즈' 등 국내외 중요한 공연을 지휘하고 있다. 서울예고와 단국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 하였고, 재학중 교환학생 자격으로 자매대학인 미국 South Oregon College 와 Ohio Northern University에서 독주회를 가졌으며, 이탈리아 Milano Verdi Conservatorio와 Civica Musica에서 피아노와 지휘를 전공 하였다. 귀국후 지휘자 임원식과 인천시립교향악단의 부지휘자로 음악 활동을 시작하였다.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스프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코리아 심포니, 부천 필, 프라이믹 필, 대구 시향, 부산 시향, 광주 시향 등 국내 교향악단을 비롯하여 일본 신세이 교향악단, 니혼 필, 동경도립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그리스 테살로니키 국립교향악단 등을 지휘하였으며, 음반작업도 활발하여, 최현수, 고성현, 김영환, 홍혜경, 유미숙 등 한국의 대표적인 성악가들의 독집 앨범 30 여장에서 편곡과 지휘를 하였다. 최근 녹음으로는 'Ensemble Orchestra de Paris'를 지휘한 홍혜경 한국가곡집과 바로크 합주단을 지휘한 김영률의 Mozart Horn Concerto 전곡이 있다.



소프라노 김유섬

- 부산대학교 음악과 졸업
- 이태리 G.Rossini 국립음악원, OSIMO 아카데미 및 MANTOVA 아카데미 졸업
- 독일 "BONN" 국립오페라단 정식 주역가수로 활동.
- 마리오델모나코 국제콩쿨 연속2회 1등
- 이리시아다미 꼬라네티 국제콩쿨 1등
- 마리아까날리아국제콩쿨 2등
- 푸치니콩쿨 2등 등 국제콩쿨 10회 입상
- 이태리 페르니의 베르디극장에서 오페라 '라보엠'으로 데뷔하여 '나부코', '나비부인', '토스카', '투란도트', '춘희', '리골렛토', '사랑의 묘약', '수녀안젤리카', '모세' 현대오페라 'HANJU', '춘향전', '고구려의 불꽃'등에서 주역으로 이태리, 스페인, 독일, 유고슬라비아, 서울, 대전 예술의전당 오페라페스티벌에서 공연
- 창작오페라 '황진이' 주역으로 일본신국립극장, 미국 할리우드의 코닥극장, 북경의21세기극장, 러시아의크레믈린궁, 하노이국립오페라하우스,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함
- 이태리 토레델라고 야외오페라극장에서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 공식초청작품 '나비부인'에서 주역공연.
- 오라토리요 메시아, 천지창조, 사도신경, 레퀴엠, 합창 교향곡의 솔리스트로 연주
- KBS 열린음악회, KBS 발굴이사람, MBC 가곡과 아리아의 밤 등 수천회의 콘서트출연
- 현재, 부산중앙교회 호산나찬양대 지휘자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테너 신동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2년 재학중 도미하여 인디애나대학 음대를거쳐 필라델피아 The Academy of Vocal Arts에서 졸업하고 오페라 '아이다'에서 '라다메스'역으로 영국 코벤트 가든의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그는 같은역으로 오스트리아의 빈 국립극장, 독일의 베를린 국립극장,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극장, 필라델피아 오페라극장, 핀란드의 사볼리나 축제에서 공연하였고, 특히 미국의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에서 지휘자 Carlo Rizzi와 함께 공연하였다. 이태리 트리에스테에서는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에서 '삼손', 베르디 '레퀴엠'을 공연하였다. 또한 그는 독일 드레스덴 젤퍼오퍼에서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에서 '만리코'역을 맡아 지휘자 Fabio Luisi와 함께 공연함으로 굉장한 성공을 이룩하여 내었다. 또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인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크리스토퍼 에센바흐와 함께 공연함과 동시에 미국 산타페에서 오페라 '투란도트'의 '칼라프'역을 데뷔하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호주 오페라단의 갑작스런 요청으로 오페라 개막 하루 전날 시드니에 도착하여 '칼라프'를 불러 드라마틱한 호주 데뷔로 대중과 평론가들로부터 큰 찬사를 이끌어 낸바있다. 한국에서는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 '칼라프'역으로 데뷔하였고, 오페라 '아이다' 중 '라다메스'역을 함께 했다. 서울시립오페라단, 대구오페라단, 인천 오페라단과 오페라 '아이다', '투란도트', '나비부인' 등을 함께 했다. 테너 신동원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쿨, 리치아 알바네제-푸치니 콩쿨, 카루소 콩쿨, 자르자리 콩쿨, 팜비치 오페라 콩쿨 등 세계적인 유수의 콩쿨에서 우승을 하며 그의 이름을 알렸고 그와 동시에 오페라무대에 화려하게 등장 하였다. 서울대학교 재학중 테너 박인수 교수께 사사하였다.

Performance Guide

2014. 5. 1(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지휘 김덕기(객원) 협연 김유섬(소프라노), 신동원(테너), 이광규(베이스), 정수연(메조 소프라노), 오미선(소프라노), 김동섭(바리톤)



베이스 이광규

- 한양대 졸업
-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 석사, 박사 취득
- 뉴욕 메트로 폴리탄 오페라 단원으로 활동 중
- Classical Singer Audcomps 콩쿨 Grand Prize와 audience choice 상
- Annapolis Opera 콩쿨 Grand Prize
- Altamura Caruso 국제 콩쿨 우승
- New Jersey State Opera 국제 콩쿨 우승 등 10개 대회에서 입상
- 오페라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리골레토' 등 약 30여편의 오페라 작품에서 주연으로 출연
- 올 시즌엔 뉴욕에선 차이코프스키의 '이오란타', 필라델피아에서 '피가로의 결혼', 산호세 '마술피리' 출연 예정
- 뉴욕 카네기 홀, 워싱턴 케네디 센터등 주요 극장에서 10여 차례의 독창회 및 메시아, 천지창조, 베토벤9 심포니 등 오라토리오 가수로도 활동 중 현 뉴욕MIA Artist Management 소속으로 활동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 한양대학교 성악과 졸업
- 미국 Peabody conservatory 석사 및 전문연주자 과정 졸업
- 미국(필라델피아) Academy of Vocal Arts에서 Artist Diploma과정 졸업 메트로 폴리탄 지역우승, 리더크란프, 오라토리오 소사이어티, 지아르자리, 마리오 란자, 몬트리올 주네스뮤지컬, 등 다수대회 입상
- 뉴욕 링컨센터, 카네기홀, 머건홀, 캐나다, 멕시코 플라스데자르에서 연주
- 미국 보엠오페라단, 샌안토니오 오페라단에서 나비부인 공연
- 돈카를로, 노르마, 카르멜회수녀들의 대화, 나비부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팔스타프, 루크레치아 보르지아, 박쥐등 오페라 주역가수로 활동
-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KBS 교향악단과 협연
- 현, 세일아트홀 기획실장



소프라노 오미선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이탈리아 페스카라 음악원 Diploma
- 베스카라 아카데미아 오페라학과, 산타체칠리아 아카데미, 베냐미노 질리 아카데미, 비오티 아카데미 Diploma
- 국립오페라단 <라 보엠>, <투란도트>, <사랑의 묘약>, <카르멘>, <마탄의 사수>, <호프만 이야기>, <영혼의 사랑>, <라 트라비아타>, <잔니 스키키>,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마술피리>, <모세> 주역 출연
- 국립오페라단 상근단원 역임
- 현, 기독교문화홍보대사, 대한적십자홍보대사
- 현, 성신여자대학교 성악과 교수



바리톤 김동섭

- 서울 음대 성악과 졸업, 동대학원 수료
- 독일 정부 장학생으로 선출(DAAD)
- 뮌헨 음대 성악과 오페라과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 MBC대학가곡제 대상
- 독일 가곡 콩클 1위, 2000 중앙 콩클 1위
- 서울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윤이상의 심청 중 심봉사 역과 파우스트의 검벌 중 메피스토펠레 역
- 뮌헨 ARD 콩클 1위, 뉘른베르크 파스벤더 콩클 1위 바이로이트 바그너 콩클 입상
- 인스브룩 극장에 세계적인 메조 소프라노 브리짓 파스벤더에 발탁 주역 가수로 2010년까지 활동
- 독일 바그너 협회에서 주관 하는 바그너의 밤과 국립합창단과 하이든의 천지창조에 출연
- 독일 할레극장과 루드비히스 하펜 극장에서 동양인 최초로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중 '보탄역'으로 연속 출연
- 한국 월드스타 시리즈 '조수미 콘서트'출연 등

Program

서곡 | La Forza del Destino(운명의 힘) | G.Verdi

강건너 봄오듯이 | 임금수 - 소프라노 김유섬

신고산 | 장일남 - 바리톤 김동섭

임이 오시는지 | 김규환 -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박연폭포 | 김희조 - 테너 신동원

청산에 살리라 | 장일남 - 베이스 이광규

아리 아리랑 | 안정준 - 소프라노 오미선

그대 음성에 내 맘 열리고 | 생상스 -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조국의 적 | 안드레 쉐니 - 바리톤 김동섭

호프만 이야기 중 "인형의 노래" | 오펜바흐 - 소프라노 오미선

돈조반니 중 "카탈로그의 노래" | 모차르트 - 베이스 이광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 안드레 쉐니 - 소프라노 김유섬

트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이루고" | 푸치니 - 테너 신동원

- 휴식 -

일트로바토레 중 "이 괴로운 눈물을 보세요" | 베르디

- 소프라노 오미선, 바리톤 김동섭

돈 조반니 중 "손에 손을 맞잡고" | 모차르트

-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베이스 이광규

나비부인 중 "저녁이 오고 있어요" | 푸치니

- 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신동원

교향악단 제173회 정기연주회

고전으로의 열정

66

정확한 지휘와 풍부한 음악적 해석, 오케스트레이션이 돋보이는
마에스트로 김홍재와 한국을 대표하는 플루트 연주자로 한국인
최초로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3위)하면서 국제적으로도
그 실력을 검증받은 플루티스트 윤혜리와와의 조우가 기대되는 품격
높은 무대가 될 것입니다. 99



Cast



윤혜리 플루트

놀라운 연주력과 우아하고 아름다운 음악성을 지닌 플루티스트 윤혜리는 한국에서 김대원, 고순자를 사사, 서울에 고 1학년 재학 중 도미하여 커티스 음악원에서 플루트계의 대부인 줄리어스 베이커를 사사하였다. 파리 국립음악원 대학원과정에서 알랭 마리옹을, 바젤 아카데미에서 피터 루카스 그라프를, 맨하튼 음대에서 진 백스트레서를 사사하면서 실내악과 오케스트라 등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하였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3위에 입상한 윤혜리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스위스 로망 관현악단,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 하였다. 뉴욕 필하모닉 객원으로 링컨 센터에서 연주를 하기도 한 윤혜리는 뉴 월드 심포니 수석주자로 3년간 활동하였고, 스페인 테네리테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는 수석주자를 역임하였다.

국내에서도 2009년, 2011년 예술의 전당<교향악축제>협연, 크레디아 초청독주회, 금호아트홀 그레이트 아티스트 시리즈 독주회를 가졌고, 부천필, 수원시향, 서울시향, KBS 교향악단 등 다수의 국내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 하였다.

삼성 클래식에서 "Elegra" CD를 출시한바 있고, 2013년 가을에 소니 클래식에서 금호아트홀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플랑"을 출시하였다. 2007년부터 프랑스 페스티벌 드 프레파이 창단멤버로 연주 및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 고베 국제 콩쿠르 심사에도 초청, 2014년 오렐니콜레 국제 콩쿠르에도 초청받았다.

현재 아울로스 목관5중주, 금호아트홀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아시아 플루트연맹, 한국플루트교육자 협회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샤브리에 / 스페인 광시곡

Charbrier Rhapsodie Espana in F major

샤브리에의 작품 중에서 널리 알려진 이 랩소디(스페인)은 그가 41세때 스페인의 여행에서 받은 인상을 그려 놓은 피아노곡이었는데, 후에 오케스트라로 이를 편곡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는 자유로운 형식에 의한 랩소디로 트럼본의 선율과 스페인 무곡조에서 얻은 2개의 주요 멜로디를 중심으로 한 풍부한 색채를 발휘한 걸작이다. 이 스페인 무곡은 왈츠풍의 호타(Jota)무곡이며 다른 하나는 3/4 박자의 말라게나(Malagueña)의 아름답고 관능적인 무곡이다. 여기에서는 2개의 주제를 주로 하고 다시 2개의 부주제가 교묘하게 전개되어 나가면서 화려하고 경쾌하게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베르 / 플루트 협주곡

Ibert Flute Concertos

1. Allegro
2. Andante
3. Allegro Scherzando

1923년부터 이듬해에 걸쳐서 작곡되어 당시의 프랑스 제1의 플루트 주자 마르셀 모이즈에게 바쳐졌다. 초연은 1934년 2월 25일, 소시에테 데 콩세르드 콩세르바트아르의 정기 공연에서 마르셀 모이즈의 독주, 필립 고베르의

지휘에 의해 연주 되어졌다. 대표작으로서는 너무도 유명한 관현악 모음곡 “기항지” 1922년 외 “디베르티스망” 1930년 “축전서곡” 1940년 “첼로 협주곡” 1926년 “플루트 협주곡 “1933년, ”알토 색소폰과 11의 악기를 위한 쉐네소협주곡“ 1935년, ”오보에와 현을 위한 협주적 교향곡“ 1949년, ”현악4중주곡“ 1942년, 피아노곡 이야기「조그만 흰 노새」를 포함 1931년, 광대극 「안젤리크」 1927년 등을 들 수 있다.

프랑크 / 교향곡

Franck Symphony in D minor

1. Lento - allegro non troppo
2. Allegretto
3. Allegro non troppo

이 교향곡은 프랑크가 63세가 되던 해에 쓰기 시작하여 다음 해에 완성된 그의 유일한 교향곡이다. 1887년 1월에 파리음악원에서 초연되었으나 평판이 좋지 않았다. 이 작품은 깊은 사상과 미묘한 감정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비로운 악상으로 배합되어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이 작품의 구조상의 특징은 순환형식(Cyclic form)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순환형식이란 여러 악장으로 된 악곡에서 전 악장을 통해 특정한 주제가 나타나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작곡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1악장 렌토 - 알레그로 논 트로포 2/2 박자.

느린 서주부로 시작되는 이 악장은 극히 신비스런 세계를 연상케 하는 깨끗한 음악이다. 제1테마는 무엇을 갈구하는 듯한 애조를 띤 선율이다. 마치 문답하듯이 나타나는 ‘표어’는 전곡을 통해 여러 번 나타나 마지막 악장에서 그 해결을 보게 된다.

제2악장 알레그레토 3/4박자.

느리고 조용한 부분을 지나 빠른 템포로 진행된다. 리트 형식을 취했으나 중간에 스케르초가 있고 나중에 다시 처음 부분이 나타난다. 잉글리시 혼이 연주하는 주제가 점차 발전, 성장하여 신비의 세계로 이끌어 간다.

제3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D장조 2/2박자. 소나타 형식.

이 악장에서는 전혀 성질이 다른 새로운 주제가 나타나는데 ‘환희의 동기’라고도 부른다. 유명한 지휘자 스토크프스키의 말과 같이 이 악장에서 느껴지는 기분은 마치 프랑크가 교회에서 나와 속세의 친구들의 세계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장엄한 코랄풍의 주제는 종교적인 위안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힘을 주는 것 같다.

제1악장에 나타난 질의가 여기에서 비로소 승리의 해답을 얻게 된다. 모든 번민을 해결해 주는 듯한 화려한 연주라 할 것이다.

Performance Guide

2014. 5. 16(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지휘 김홍재(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연 윤혜리(플루트)



울산시립합창단 가정의 달 기념 기획공연

칸타타 구미호



예술감독 겸 지휘 구 천

국립합창단에서 창작 초연으로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던 음악극 형식의 칸타타 시리즈로서 2013년 가족음악회로 선보였던 <아~ 결혼>에 이어 2014년에 두 번째로 선보이는 <구미호>는 오케스트라 반주와 함께 독창, 중창, 합창 등 다양한 형식으로 연주된다.

울산시립합창단에서는 이 작품을 더욱 짜임새 있게 각색하여 가정의 달인 5월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음악회로 선보이고자 한다.



해설자 이병웅



여인 김성아



사내 정규현

공연소개

여우구슬을 품은 구미호가 전설의 심장을 가진 남자를 찾아 인간이 되기를 갈망한다.

어둠 속을 헤매다 만나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한 남자.

하지만 그가 천년이나 기다린 전설의 심장을 가진 사내라니...

사랑과 천년의 소망 사이 갈등하는 한 연인.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더욱 믿어지는 진실 하나는 내 심장이 그대를 살린다는 것. 내 사랑이 그대를 살게하는 것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진실 국립합창단의 창작칸타타 만들기 시리즈의 일환으로 2012년 초연된 작품이며 구미호와 인간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Program

- 서곡(합창)
- 어둠 속의 여인들(합창)
- 감추어진 이야기(해설자 독창)
- 천년의 유혹(여성합창)
 - Sop solo 김수미, 배선화, 박인경, Alto solo 강연희, 정연실
- 붉은 심장의 전설(여성합창)
- 어둠 속의 사내들(남성합창)
 - Ten solo 박현민, 정필운, Bass solo 황성진
- 밤을 멈추게한 사랑(합창, 사내 독창)
- 아흔 아홉 날의 고백(여인, 사내 이중창)
- 하루가 천년 같은, 사랑(합창)
- 운명의 비명(합창, 여인 독창)
- 처음으로(여인 독창, 사내 독창, 합창, 여성합창)
- 시간이 없다(해설자 독창, 합창, 여인 독창)
- 마지막 선택(여인, 사내 이중창, 합창)
- 내 심장으로 너를(합창, 여인, 사내 이중창)
- 전설이 된 연인
 - (합창, 여인 독창, 사내 독창, 여인, 사내, 해설자 중창)



Performance Guide

2014. 5. 3(토) 오후 4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석 5,000원(회원 30%, 단체 20% 할인적용)

※ 만 5세이상 입장가능

지휘 | 구천 반주 | 캄머오케스터서울

2014 울산시립무용단 기획공연

한국의 리듬과 몸짓의 향연 “타타타Ⅱ”

이번 공연 타타타는 한국 타악의 역동적인 리듬과 전통무용의 예술적인 움직임만이 존재하며, 그 리듬과 움직임을 연주자들이 디자인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성을 자극하여 최고의 예술적 경지로 이끈다.

음의 강약과 음양, 한배 등의 조화, 각 악기간의 주고받음과 서로 엇물려 가면서 연주되어 한국의 정서와 한국 문화의 예술성을 다채롭게 풀어내며 세련되고 현대화된 예술로 교감 할 수 있는 작품이다.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예술형태의 실험적인 무대를 통해 전통 예술의 새로운 차원을 해석하여 문화경쟁시대를 맞아 순수 전통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를 잇는 새로운 울산의 문화예술상품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Program

- 여명
- 리듬모리
- 물드럼 칠채
- 사물유희
- 하늘마치
- 동방의 빛
- 바람의 유희
- 자진마치
- 축제
- 환희
- 비상



북은 세계 모든 민족이 공통으로 즐기고
 누려온 악기이며 단순한 두드림은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조화로운
 화음으로 변해왔다. 지리적, 인종적인
 요소에 구애 받지 않고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한국의 리듬과 몸짓이 어우러진
 가장 한국적인 예술 형태의 공연으로
 남녀노소를 뛰어넘어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작품으로 구성한다.



Performance Guide

2014. 5. 23(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10,000원, S석/7,000원, A석5,000원(회관회원 30%, 단체 20%)

안무 김상덕(예술감독 겸 안무자) 훈련지도 박정은(무용단 지도자)

음악감독 전인근



김이란 Kim, Lee - Ran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개인전 4회(서울, 울산)

단체전

올해의 작가 개인전·2014

「5월의 작가 김이란展」

울산문화예술회관(관장 이형조)이 지역 작가들에게 창작 활동 동기 부여와 울산사랑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한 ‘올해의 작가 개인전·2014’의 네번째 주자로 「5월의 작가 김이란展」이 ‘아름다운 그대, 아줌마’를 주제로 5월 한 달간 상설전시공간 ‘갤러리 쉼’에서 개최된다.

김이란 작가는 서울, 울산에서 개인전 4회와 아시아프(ASYAAF), 한·일 현대미술 100인전 및 부산국제 환경예술제 등 각종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2013 아시아프(문화역서울284, 서울)
부산대학교 신진작가 기획전(부산아트센터, 부산)
꿈의 1막 기획전(경북대학교미술관, 대구)
바람난 미술 선정작가(서울문화재단, 서울)
경남은행 신진작가 기획전(KNBart갤러리, 창원)
- 2012 포항 아트페스티벌(문화예술회관, 포항)
- 2011 출발을 위한 제언전2(부산대학교 아트센터, 부산)
한국화 대학원생교류전(아트센터, 부산)
아트센터 신진작가전(아트센터, 부산)
포트폴리오전(작은이소, 대구)
- 인사미술제 - 굿초이스 미래작가전(우림갤러리, 서울)
- 2010 아시아의 새로운 도약전(SIK, 일본)
가가갤러리 리얼리즘 선정 작가전(가가갤러리, 서울)
한일 현대미술100인전(주한일본대사관공보문화원)
- 2009 아시아프 ASYAAF(기무사, 서울)
- 2008 아시아의 새로운 도약전(SIK, 일본)
부산국제 환경예술제(울속도문화회관, 부산)
외 각종 단체전 다수

• 겹날 <김이란작>





• 외롭다 I <김이란작>

작가는 ‘아줌마’를 테마로

그녀들의 고단한 일상과 무의식적 희생이 생활인

파마머리에 밥 풀 묻은 소탈한 모습 속에서

여성의 아름다움과 일상에서의 평범함이 소소한 행복임을

현대 풍속화를 통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EXPLANATION

이번 전시에는 억척스럽고 극성맞은 파마머리가 상징적인 아줌마들의 일상 속 이야기들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미술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장지에 채색을 하는 한국화 기법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명화의 구도를 그대로 옮겨 아줌마들의 ‘젓날’이라는 주제로 패러디 하기도 하였고, ‘불금’이라는 주제와 달리 작품 속에는 불타는 금요일에 아이를 재우다 잠이든 아줌마의 일상적인 단면을 보여 주면서 작가의 특유감각으로 해석한 작품을 전시한다.

「올해의 작가 개인전」은 지역작가 창작활동 지원과 울산 전시예술발전에 밑거름이 되자는 취지로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하는 전시로, 올해 총 10명의 작가들이 선정되어 매월 릴레이 형식의 개인전으로 개최되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에 가족들과 함께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야외전시장의 다양한 조각품 감상과 더불어 김이란 작가의 ‘아줌마’ 작품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과 일상의 여유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

Performance Guide

2014. 5. 1(목) ~ 30일(금), 30일간

갤러리 섬



• 불금 I <김이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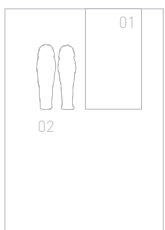
• 바쁘다 I <김이란작>

• 01



• 02

미술교육 프로그램 『동·서양 디지털 미술전』



01_ 서양미술 투탕카멘 왕의 관

02_ 동양미술 진시황의 왕릉을 지키는 병사들

문화예술회관은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서양 디지털 미술전」을 제1전시장에서 마련한다. 고대시대부터 20세기의 현대 미술까지 동·서양미술사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디지털 미디어로 복제한 작품 총 80점과 DVD영상 130컷을 선보이는데 관람객이 전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주요 작품을 감상하며 동·서양미술사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비교하며 정리할 수 있는 흥미롭고 유익한 교육적인 기능을 강조한 전시라고 말할 수 있다.

03	04
05	
06	

- 03_ 서양미술 피에트 몬드리앙 <적·황·청·흑의 컴포지션>
 04_ 동양미술 팔대산인 <석창포도>
 05_ 서양미술 마사치오 <성 삼위일체>
 06_ 동양미술 황공망 <부준산거도(부분)>

• 03



• 04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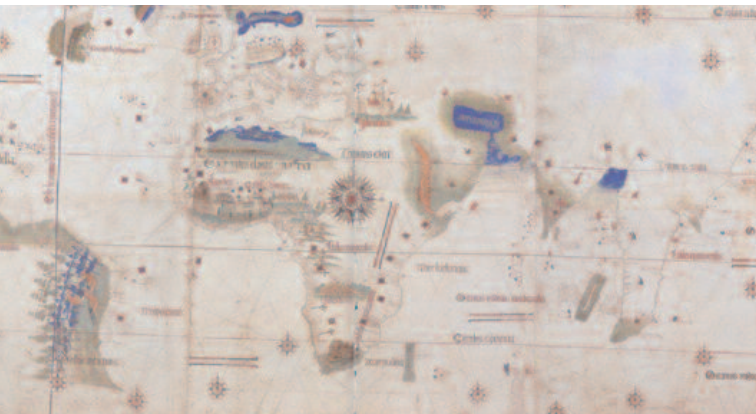
밤과 낮이 전혀 다른 세계 이듯이 오랜 역사를 독자적으로 영위해 온 동양과 서양은 눈으로 보고 사고하는 방식에서부터 윤리, 규범, 생활양식 등이 판이하게 다르며 동·서양의 미술은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주옥같은 걸작들이 만들어져 왔다.

‘시인, 미술가, 조각가, 건축가, 발명가’ 등은 15~6세기 서양의 르네상스 미술가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늘 따라붙는 말들이다. 이러한 르네상스 인간형을 다재다능한 천재, 즉 만능이라 부른다. 이런 인간들이 위대한 서양문화를 만들었고 동양에는 이런 천재들이 없어 미술이 뒤쳐진 것으로 생각하기 쉬웠다. 그러나 동양에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에 못지않은 천재들이 아주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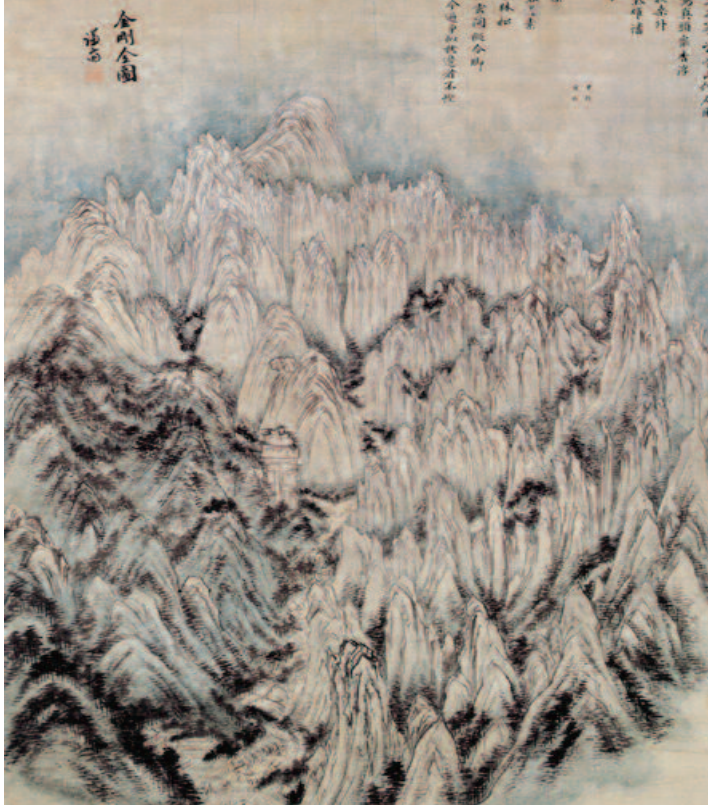
르네상스 인간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이 동양의 사대부(士大夫)들이다. 그들은 시서화(詩書畫)는 물론이고 학문, 행정, 정치에 조예가 깊었으며, 시인, 건축가, 행정가에 정치가였다. 하지만 왜 서양미술사의 천재들과 달리 동양미술사의 사대부들은 천재로 들어나지 않았을까?



• 06



• 07



• 08

1840년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의 패배는 수천 년간 지속된 중화(中華)의 세계질서가 무너지고 서양식 근대화로 재편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화제국의 패배는 이제 아시아에서의 중심이 중화에서 서양으로 바뀔과 중국, 조선, 일본 등은 새롭게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후 미술은 서양주도권에 편입되어 오늘날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동·서양 디지털 미술전」은 동·서양은 어떻게 세상을 보아왔는지를 동·서양화가들의 독특한 눈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 또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기술 개발로 시각 예술의 환경이 급속하게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과정을 단 시간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시회이다. 이와 연계하여 교육적인 목적을 더욱 강화하고자 미술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여 전시기간 동안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뉴미디어를 통한 체험형 미술교육이 매일 2회씩(10:00, 14:00) 총 16회와 일반관람객을 위한 관람해설이 매일 3회씩(11:00, 16:00, 17:00) 총 24회 진행된다.

울산의 문화예술을 선도하고자 공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08
07	

07_ 서양미술 칸티노 <세계지도>
08_ 동양미술 정선 <금강전도>

Performance Guide

2014. 5. 2(금) ~ 5. 9(금), 8일간 제1전시장

동·서양 대표 미술작품 80점과 DVD영상작품 감상 및 체험형 미술교육 실시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Part-1 예술을 말하다

예술축제를 찾아서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재미있는 미술사 여행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Ⅱ)

특별기획

2014 울산시립예술단 상설공연
『Art in Cinema』

함께하는 삶

예술전문도서실 개관

5월의 공연·전시



Speak of Art

봄에는 프라하 여행 어때요?

세계적으로 인기 높은 여행지인 프라하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도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체코의 수도 프라하를 어떻게 접하게 됐나요?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프라하의 봄'이라는 영화? 제가 프라하라는 도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밀란 쿤데라의 소설들 때문이었습니다. 체코 출신 쿤데라의 책에는 아름답고 우아하기 보다는 공산주의의 박무가 깔려 있는 무거운 느낌의 프라하였죠. 그러다 몇 년 전 무라카미 하루키의 <Q84>에 또 체코가 언급되더군요. 하루키가 야나체크라는 체코 출신 작곡가의 음악을 배경으로 깔았기 때문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흔히 알고 있는 프라하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 않을까... 프라하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사연이 있는 도시가 아닐까 하고요. 어때요, 저와 함께 일단 떠나보시겠어요?



글 윤하정

KBS앵커, TBC 방송기자 등 방송활동과 YES24 공연매거진 등의 공연리뷰 및 인터뷰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를 저술하고 현재 영국 휴학 중이며 유럽 공연기행을 준비중이다.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

<http://www.festival.cz/en>



프라하 봄 음악제(Prague Sp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공연을 테마로 여행하는 저에게는 그 도시의 페스티벌 달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코에는 야나체크에 앞서 스메타나와 드보르작이 활약했습니다. 그래서 늦봄에 프라하를 찾으면 도시 전체가 그들의 음악으로 들썩거리죠. 바로 <프라하 봄 음악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프라하 봄 음악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당시 체코슬로바키아가 독일에서 독립한 다음해인 1946년에 처음 열렸습니다. 창단 50주년을 맞은 체코 필하모닉을 중심으로 세계 일류 연주자들을 초대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자는 의도였는데요. 이후 축제는 해마다 5월 12일에 시작해서 6월 2일을 전후로 막을 내립니다. 끝나는 날은 변동이 있지만, 시작하는 날은 항상 5월 12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스메타나의 기일이기 때문인데요. 스메타나는 체코인들의 민족운동을 격려했던 국민 음악가로, <프라하 봄 음악제>는 언제나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으로 문을 엽니다. 페스티벌은 오베르니 돔 안에 있는 스메타나 홀과 루돌피눔에 있는 드보르작 홀을 중심으로 도심 곳곳의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인기 공연들은 일찌감치 티켓이 매진되고 가격도 비싼 편이지만, 공연장마다 시간대별로 대중적인 레퍼토리의 저렴한 공연들도 운영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스메타나 홀이었습니다. <프라하 봄 음악제>의 오프닝 콘서트가 열리는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이죠.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949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창설됐는데 유명 지휘자들이 예술 감독을 역임하면서 수준 높은 연주를 자랑해 왔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비엔나에 가까워서 오스트리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결국 프라하의 체코 필하모닉과 어깨를 겨루는 관현악단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들이 연주하는 스메타나는 군기 바짝 든 군인의 각진 발걸음처럼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정확함과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메타나 홀에서 느낀 분위기와 딱 어울린다고 할까요? 문득 우리가 여전히 동유럽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과거 서유럽과는 다른 체제였기에 나눠있음을 실감합니다. 음악에서도 연주에서도 서유럽이나 중유럽의 그것과는 신기할 정도로 낯선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 국제적인 음악제가 놀랍도록 민족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스메타나 홀, 드보르작 홀 등 체코 출신 음악가들의 기념 홀에서 열리는 콘서트에서는 다른 어떤 음악제보다 체코 음악가들의 음악이 무수히 연주되거든요. 관객 입장에서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정서로 그들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 나라에 그들의 음악에 각인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라하 둘러보기

프라하의 자존심 프라하 성

프라하 성은 9세기에 건축이 시작돼 16세기에 완공됐는데, 그 사이 로마네스크에 고딕, 르네상스 양식까지 더해져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성 내에는 구왕궁과 성 비투스 대성당, 성이르지 교회, 황금 소로 등이 있어서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를 보는 듯 합니다. 프라하에서 가장 예쁜 거리로 꼽히는 황금소로는 처음에는 성의 보초병들이, 나중에는 연금술사와 금세공사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서점이나 기념품 상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식예술의 거장 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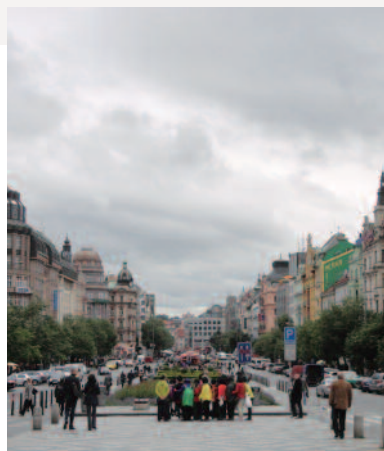
바츨라프 광장에서 살짝 벗어나면 체코를 대표하는 아르누보 예술의 거장 알폰스 무하의 그림이 전시된 미술관에 닿을 수 있어요. 무하는 프랑스 파리에서 데뷔해서 뭉샤로 불리기도 하는데 장식 예술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포스터, 잡지 커버, 엽서, 달력, 식기, 직물 등에서 이른바 '무하 스타일'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아르누보 양식답게 무척 화려하고 여성적인데, 성 비투스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나 시청사의 벽화 등 도시 곳곳에서도 그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ague

프라하의 중심 구시가광장

프라하가 특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우아하고 근사한 건축물들이 큰 몫을 담당하는데요. 로마네스크에서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아르누보까지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건축 박물관 같습니다. 특히 구시가광장에는 병풍처럼 드리워진 멋진 건축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밤에는 고딕양식의 틴 성모교회가 조명을 받아 강렬한 이미지를 돋보인다면, 햇빛이 가득한 낮에는 화려하고 따뜻한 로코코 양식의 골스 킨스키 궁전이 눈에 띕니다. 구시가광장의 큰 볼거리 가운데 하나는 구시청사의 천문 시계탑에서 펼쳐지는 시계쇼인데요. 15세기에 만들어진 장치시계에서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해골 인형이 종을 치면 12명의 그리스도 사도가 등장합니다. 덕분에 이 일대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자유의 상징 바츨라프 광장

국립 박물관과 맞닿아 있는 바츨라프 광장은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를 떠올릴 만큼 프라하에서 가장 변화하고 현대적인 거리입니다. 광장 중앙에는 작은 공원이 있고 보행자 공간도 따로 조성돼 있는데, 7백 미터에 달하는 대로 양편에는 우아하고 근사한 건축물 속에 호텔과 브랜드 숍, 레스토랑, 카페가 즐비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프라하의 가장 역사적인 공간이기도 하죠. 무척 낭만적으로 들리는 '프라하의 봄'은 사실 1968년 옛 소련에서 벗어나려던 체코인들의 민주자유화 혁명을 말하는데, 그 집회 장소가 바로 바츨라프 광장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이 운동을 막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했고, 그래서 광장에는 공산정권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프라하의 멋 카를 다리

프라하에 와서 이 다리를 수없이 지나다봤건만 올 때마다 새로움이 가득하고 볼 때마다 다른 빛깔인 것 같아요. 카를 다리로 가는 길은 골목골목 들어찬 커피숍과 레스토랑, 각양각색의 유리세공품과 마리오네트 인형을 보느라 혼자 걸어도 마냥 재밌습니다. 1402년에 완공된 카를 다리는 너비 9.5미터, 길이 516미터로 유럽의 중세 건축미를 뽐내고 있죠. 블타바 강을 가로지르는 카를 다리는 독특한 모양은 물론이고 다리 위에 있는 30기의 성인상, 곳곳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로 그 자체가 볼거리입니다. 또 이곳에서 바라보는 프라하 시내와 프라하 성, 특히 야경은 빼놓을 수 없겠죠. 저도 오늘은 파사로운 카를 다리 위에서 넉넉하게 시간을 보내볼 생각입니다.

함 께 하 는 음 악 이 야 기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통영의 바다는 푸른 물빛이 참 예쁘다. 그래서 작은 항구도시지만 그 모습이 외국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몇 해 전 따뜻한 봄 어느 날, 인문학 기행으로 10여명의 사람들과 통영을찾았다. ‘통영국제음악제(TIMF)’가 끝난 이후여서 관련 공연은 못봤지만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기념공원도 거닐었고 해저터널을 지나 김춘수 시인의 유품 전시관과 전혁림 미술관을 가서 그들의 예술혼을 만났다. 벚꽃이 지는 시기긴 했지만 김춘수 유품전시관에서 전혁림 미술관으로 올라가는 길의 벚꽃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존경하는 소설가 박경리 선생의 흔적을 찾아보는 코스가 얼마나 마음을 축축하게 해주던지 그야말로 감성 충전해지는 시간이었다. 통영이 낳은 문인, 예술인들의 생기는 하나같이 바다를 향해 있었고 드넓은 바다와 그 사이 사이에 떠 있는 섬들을 마주하며 자란 감성이 남다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다. 윤이상 선생만 하더라도 자신의 음악은 모두 통영에서 출발했고 고향에서 들었던 소리가 음악의 모티브가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 잔잔한 바다 그 푸른 물색 가끔 파도가 칠 때도 그 파도 소리는 내게 음악으로 들렸고, 그 잔잔한 풀을 스쳐가는 초목의 바람도 내게 음악으로 들렸습니다.”

통영은 이런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선생을 내세워 2002년부터 통영국제음악제를 열었고 쇼팽, 차이코프스키의 이름을 쓰는 국제 음악 콩쿠르가 자국의 자랑이 되고 또 그 나라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하고 있듯 윤이상의 이름을 콩쿠르에 사용한 이후 통영국제음악제의 명성도 덩달아 높아졌다. 그리고 비록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수많은 외국의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선 통영국제음악제가 윤이상 음악제로 통하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전세계 음악인들이 통영으로 향하고 있고 통영국제음악제의 성공의 바탕에는 윤이상 선생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윤이상 선생에 대한 인물 평가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음악가로서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뉴욕 브루클린 음악당 로비 벽면에 위대한 예술가 44명에 이름을 올린 그의 작곡가로서의 면모를 얘기한다. 44명의 예술가 중 조지 거슈윈, 벨라 바르토크,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윤이상만이 20세기 음악가이니 윤이상이 현대음악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컸다는 걸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윤이상 선생은 생전에 ‘유럽에 현존하는 5대 작

곡가'로 선정되기도 했고 또 세계를 통틀어 10명 이내인 국제 현대음악협회의 명예회원이었으니 그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작곡가라는 점을 추앙하고 있다. 하지만 그를 따라다니는 친북행적 논란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윤이상 선생은 1967년 동베를린(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독일과

프랑스 유학생 194명이 북한에 드나들고 대남적화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유럽 음악계의 구명운동에 힘입어 1969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지만 이 일로 그는 독일로 영구 추방됐고 끝내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1995년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그의 사후에도 친북행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세계적인 음악가로서의 윤이상 선생을 조명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될 일이다.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윤이상 선생이 세계 음악사에 남긴 업적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윤이상 선생의 명성은 세계적인데 반해 그의 음악은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가 살아온 삶이 무거워서 인지 그의 음악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윤이상 기념관에 안치된 선생의 흉상에 새겨진 글을 봐도 그렇다.

“나의 음악은 역사적으로는 나의 조국의 모든 예술적, 철학적, 미학적 전통에서 생겼고, 사회적으로는 나의 조국의 불행한 운명과 민족, 민권 질서의 파괴, 국가권력의 횡포에 자극을 받아, 음악이 가져야 할 격조와 순도의 한계 안에서 가능한 최대의 표현적 언어를 구사하려 노력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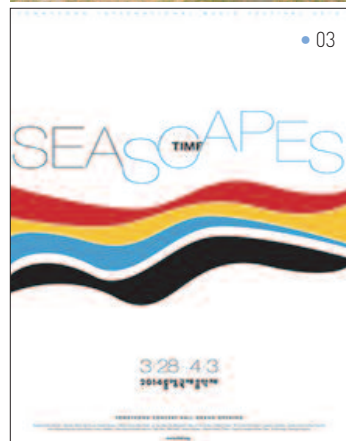
윤이상의 음악 세계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조국과 민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음악으로 표현했다는 거다. 그가 작곡한 가곡 조지훈 시의 ‘고풍의상’과 김상옥 시의 ‘그네’만 들어봐도 평소 우리가 알던 가곡과는 다른 작품이 느껴진다. 서양음악에 우리 고유 한국의 색을 덧칠했다고 할까. 성악가의 발성도 다른 듯하고 이색적으로 다가온다. 윤이상의 오페라 ‘심청’도 그렇고, ‘이미지’란 작품도 그렇고 대다수의 작품이 어찌보면 대중과 유리된 아주 난해한 작품이라 그의 작품을 대면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을 털어준 공연이 있었다. 아는 분들은 아실테지만 울산시향의 마에스트로 김홍재 씨가 윤이상 선생의 제자이다. 그래서인지 김홍재 지휘자가 종종 윤이상 선생의 작품을 공연에서 올리기도 하는데 김홍재 지휘자가 울산시향의 상임지휘자로 오고 난 이후의 어느 정기 공연에서 대관현악을 위한 환상적 ‘무악’이란 작품을 연주한 적이 있었다. 기억으로는 이 곡의 우리나라 초연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윤이상 스타일의 관현악이 아주 색채감 있게 들렸다. 타악기와 관악기의 조우가 흥겨웠고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작곡가 윤이상을 새롭게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후로 김홍재 지휘의 음반으로 윤이상의 작품을 찾아 들어보고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 근래에 들어 윤이상 선생의 작품을 듣는 지가 꽤 된 거 같다. 올해 통영국제음악제를 다녀온 지인의 말을 들어보니 새로 오픈한 통영국제음악당이 한려수도의 절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 잡아 아주 멋졌다고 한다. 올해 음악제는 끝이 났지만 6~7월과 9~10월에 이곳에서 시즌 음악회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곳에서 바다내음 맡으며 윤이상의 음악을 제대로 느껴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01



02



03

01 _ 통영국제음악당 조감도

02 _ 통영국제음악당 야외전경

03 _ 2014 통영국제음악제 포스터



도판 1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모네의 정원

따뜻한 봄날의 소풍 정경을 상상해보자. 어른들은 나무 그늘 아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뛰어 놀고 있다. 이런 너무나 평범해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보통사람들의 일상 속에 들어온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말 여가 문화를 진흥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런 논의를 할 때마다 프랑스가 선례로 꼭 등장한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전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은 여가시간을 갖고 여유를 즐기느냐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프랑스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19세기 말에서나 가능했다. 서양미술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림을 보더라도, 귀족이나 왕족 등 지배층의 여흥을 다룬 작품들은 많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을 주제로 한 그림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농업이 중심이던 시대에 보통 사람들은 종교적 축일이나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에나 겨우 놀 수 있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많은 공장들이 대도시 주변에 생겨나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었다. 농사를 지을 때는 주말도 없이 일해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노동자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무급) 휴가와 주말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인상주의는 이런 일상적 여가의 모습을 그림의 주요한 주제로 다루었다. 당시 프랑스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 나폴레옹 3세(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조카)는 파리를 현대적인 대도시로 바꾸고자 했다. 그는 <노트르담 드 파리>에 보이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들을 싹 밀어버리고, 시원하게 직선으로 쭉 뻗은 넓은 대로로 시내 곳곳에 내고,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규정에 따른 건물을 큰길가에 나란히 지었다. 오늘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파리의 모습은 이 시기에 도시 재정비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전의 왕의 궁전이나 귀족들의 대저택에 딸려있던 정원도 대중에게 개방되어, 모두가 자유롭게 들어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여유 있게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를 정비하면서 생긴 공터에다가 공원을 새로 만들어, 파리라는 대도시에도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당대 사람들의 삶을 주제로 삼았던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렇게 새롭게 조성된 공원이나 공공 유원지(기차의 발달로 마차가 없는 도시 노동자들도 파리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다), 혹은 자기 집이

도판 1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수련 연못에 반사된 구름(Rellections of Clouds on the Water-Lily Pond)>, 1920년경, 캔버스에 유채, 200 x 1,276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 함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화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전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나 친구네 집 정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즐겁고 친밀한 정겨운 모습을 화폭에 즐겨 담았다. '영원한 인상주의자'라 불리는 클로드 모네(Claude Monet)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모네는 파리에서 태어나, 다섯 살 때부터 항구도시 르아브르에서 자랐고 그림을 그리는 숙모의 영향으로 그림을 배웠다. 파리에서는 정규 미술학교인 아카데미 데 보자르에 들어가지 않고, 화가들의 개인 화실을 다녔고 여기에서 인상주의의 주요 화가인 피사로나 바지유, 르누아르 등과 교분을 쌓았다. 모델이었던 카미유와 사랑에 빠져 아들까지 낳았지만, 집안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이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자,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나 단칼에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렸다. 이 시기 모네는 화가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그림도 잘 안 팔리는데다가, 생활비도 없어 곤궁한 생활에 시달렸다. 가난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인 신혼 시기부터 모네의 그림에는 정원이 자주 등장한다(도판4). 도시적 삶의 여러 모습을 주제로 삼았고, 당시 유럽 최고의 도시 중 하나였던 파리에 살았던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과 달리, 모네는 센 강가의 교외 지역을 더 좋아했고,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꼭 정원이 딸린 집을 구할 정도의 정원 애호가였다. 조용한 교외 지역인 아르장퇴유에서 모네는 부인과 아들과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꾸렸다. 그는 정원을 가꾸고, 주변의 풍경과 가족, 친지들의 일상을 화폭에 즐겨 담았다. <양산을 든 여인>(도판2)을 보면 집 근처로 나들이를 나섰다가 남편이 부르는 소리에 막 뒤를 돌아본 순간을 포착한 듯하다. 눈부신 색채와 빛의 표현 속에 친밀감과 애정이 묻어나는 순간, 꼭 이 인물이 아내 카미유와 아들 장이라는 것을 모르더라도, 편안하게 이 여유로움과 따뜻함을 즐길 수 있다.

모네는 사랑하는 아내 카미유를 병으로 잃었지만, 작품 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점차 화가로 인정받으면서 명성과 부를 얻고, 재혼한 뒤에는 파리 근교 지베르니에 정착하여 주변의 땅을 조금씩 사들여가며 정원을 확장했다. 정원사를 고용할 정도로 넉넉했지만 모네는 몸소 정원을 가꾸는 일에 몰입하고, 또 이 정원의 다양한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인정받지 못하는 화가라는 힘들고 고단했던 젊은 시절을 이겨내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노년을 자신의 작은 지상낙원인 정원에서 보내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그의 작품에는 정원이 수없이 등장하고, 이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였다. 프랑스의 소설가 프루스트(Marcel Proust)가 "화가의 시선 아래에서 빛나는 자연이 그려낸 그림"이라고 했을 정도로 모네의 정원은 인상주의 정원과 동의어처럼 쓰인다(도판3). 지베르니에서 그는 빛과 색채를 능숙하게 다루고, 30여 년간 살면서 수 백점의 작품을 제작했다. 빛을 그리는 화가에게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백내장에 걸려 두 번이나 눈수술을 하고, 시력도 많이 약해졌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년에 대표작 중 하나인 <수련> 연작을 제작했다(도판1).

모네에게 정원은 휴식과 노동의 공간이었다. 작업 공간으로서의 정원에서 그는 아이디어와 새로운 예술적 충동을 얻었고, 휴식 공간으로서의 정원은 그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것이자, 작은 사치였다. 화가로서의 모네는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정원에서 휴식과 안식을 얻으며 진정한 삶을 누렸다.



● 도판 2



● 도판 3

도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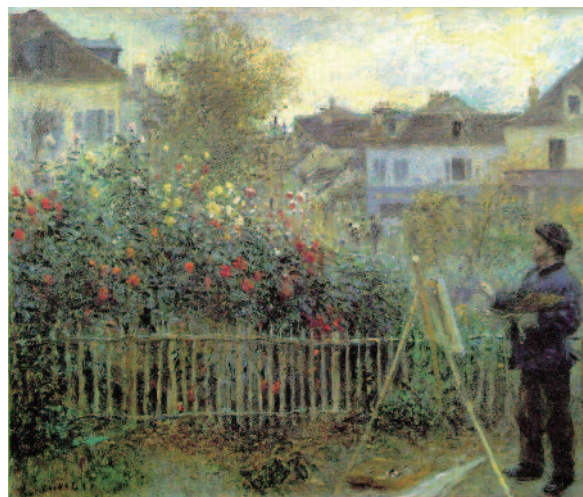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양산을 든 여인: 모네 부인과 아들(Woman with a Parasol: Madame Monet and Her Son)>, 1875, 캔버스에 유채, 100 x 81 cm, 워싱턴 DC 내셔널 갤러리.

도판 3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수련 연못 위의 다리(Bridge over a Pool of Water Lilies)>, 1899, 캔버스에 유채, 92.7 x 73.7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도판 4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아르장퇴유의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네(Monet painting in his garden at Argenteuil)>, 1873, 캔버스에 유채, 46 x 60 cm, 하트퍼드 워즈 위스 아테네움.



독일 후기 낭만파를 대표하는 대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II)

글 송종건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
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무용
과 오페라> 발행인겸 작가로 활동중이다.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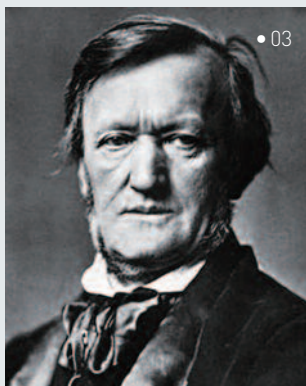
01 _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02 _ 니콜라우스 레나우

03 _ 리하르트 바그너 04 _ 프란츠 리스트



• 02



• 03



• 04

전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슈트라우스의 음악 스타일을 확연히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친 이는 작곡가이며 바이올리니스트인 알렉산더 리터(Alexander Ritter: 1833-1896)이다. 그는 슈트라우스에게 지금까지 유지해온 보수적인 스타일을 탈피하여 교향시(음시: Symphonische Dichtung, Tondichtung)를 써보라고 적극 권하였다. 슈트라우스는 리터가 자신에게 안겨준 바그너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던 중이었고,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도 접하게 되었다. 그는 무한한 표현력을 지닌 리스트와 바그너의 음악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바그너와 리스트의 음악을 합쳐놓은 듯한 슈트라우스 특유의 교향시가 탄생하게 된다.

슈트라우스는 1886년 최초 교향시, 정확히는 교향적 환상곡이라 불리는 '이탈리아에서'를 완성한다. 이 작품은 슈트라우스가 독일고전파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관현악법을 바탕으로 작곡한 초기 절대음악에서 교향시의 분야로 이동하는 과도기적인 작품이다. 슈트라우스 스스로도 이 작품을 일컬어 '과거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연결하는 쇄사슬'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 말은 비단 '이탈리아에서'라는 하나의 교향시에 국한되는 경우가 아니고 그의 교향시 전체가 그의 후반기 음악인생에 끼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슈트라우스의 본격적인 교향시 작품은 1888년의 '돈 후안'(Don Juan)부터 시작된다. '맥베드'(1888/90 개작), '죽음과 변용'(1888/89),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1895),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1896), '돈 키호테'(1897), 1898년에는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영웅의 생애'로 교향시는 끝을 맺는다. 슈트라우스의 대표적인 음악 장르로는 교향시와 오페라, 가곡 등이 있다. 그의 음악여정을 살펴보면 가곡은 평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작곡을 하였다. 교향시는 24세부터 작곡한 '돈 후안'으로 시작하여 1898년 '영웅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는다. 오페라를 살펴보면 슈트라우스의 특징이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초기작 '군트람'(1893), '화재'(1901)를 제외하고는, 그의 특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살로메'(1905)부터는 일련의 교향시들이 완성되고 난 이후부터 등장한다. 다시 말해 교향시에서 그의 음악적 기법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슈트라우스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오페라들이 탄생하는 것이다. 오페라 이외에도 발레음악, 판토크림 배경음악이나 연주회용

관현악곡들도 대부분교향시 이후에 작곡된다. 슈트라우스의 교향시는 독자적으로 완성된 하나의 영역을 구축함과 동시에 슈트라우스의 오페라를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교향시라는 음악형식은 프란츠 리스트에 의해 창안되었다. 리스트는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등과 같은 표제교향곡과 멘델스존이 주로 작곡한 연주회용 서곡을 모델로 그 중도적인 음악 양식을 만든 것이다. 13곡의 교향시를 남긴 리스트는 그 당시로는 매우 독특하게 표제를 붙인 단일악장의 자유로운 형식을 채택했다. 리스트의 교향시 대부분은 '암흑에서 광명으로' 라는 이상주의적인 심오한 주제를 담고 있어 작품의 소재 또한 이에 부합하는 어느 정도 한정된 범위에서 다루었다. 리스트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음악적으로는 피아노곡에 주로 사용되던 변용(메타모르포제: 주제를 변주풍으로 사용하거나 주제와 그 변주를 여러 번 재현하면서 작품 전체를 통일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풀어나갔다. 이러한 리스트의 교향시는 슈트라우스에 의해 대폭 발전한다. 슈트라우스는 형식 면에서는 리스트의 것을 그대로 차용했지만 소재 면에서는 리스트처럼 한정된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교향시 제목들에서 알 수 있듯이 소재의 내용이 다양하며 소재에 따라 작품 각각의 형식과 주제를 음악적으로 풀어가는 방법도 독자적이다. 슈트라우스 교향시의 소재는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의 몽상,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는 천하의 바람둥이, 생활의 경험, 등산의 괴로움, 어릿광대의 유머스러움 등등 가상과 현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고 있다. 슈트라우스는 이러한 다양한 소재들을 자유로운 론도형식, 소나타 형식, 협주곡 스타일의 변주형식 등을 사용하여 음악적으로 표현한다. '영웅의 생애'에서는 이런 모든 형식에서 해방된 독자성을 구축하기도 한다. 슈트라우스는 자신의 교향시에 리스트풍의 변용과 함께 바그너 오페라의 유도동기 기법을 사용하였다. 관현악법에서도 리스트보다 한층 발전된 바그너 스타일의 관현악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관현악의 편성이 확대되고 오케스트라의 음향도 그 규모가 달라졌다. 슈트라우스는 역대 작곡가를 통틀어 악기의 성능에 가장 통달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 관현악의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각의 악기를 독주로 내세우면서 악기의 특징을 심분발휘하여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 등을 적절히 구사하고 있다. 이런 악기 중에는 호른 등의 관악기군. 오랜 기

간 사용하지 않았던 바로크시대의 악기들, 자신이 고안한 악기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관현악 편성은 화성의 새로운 울림과 풍부한 선율을 창조하여 오케스트라 세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다. 오케스트라 편성을 보면,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이후부터 점차 확대되고 타악기, 특수 악기 등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정규 편성 악기 이외에도 타악기나 관악기를 여러 대 첨가하기도 했다. '돈키호테' 부터는 작품 속 주요인물이 늘어남에 따라 한 인물에 하나의 변주로 하나의 교향시를 만들고, 등장인물에 따른 각각의 교향시를 변주곡 형태로 엮어 하나의 전체 교향시로 만들기에 이르렀다. 슈트라우스는 이제 단악장 형식의 교향시로는 자신의 음악적 이상을 추구하기에는 한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슈트라우스는 교향시를 작곡하면서 점차 오케스트라의 편성을 늘렸고, 모든 시대의 악기를 총망라해서 사용하면서, 악기의 수를 초과 편성하는 등 갖가지 음악적 실험을 하였다. 이를 도구 삼아 모든 소재의 다양한 음악작품을 표현하고 그 음향의 효과를 저울질하였다. 슈트라우스는 교향시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자신의 악기와 음향에 대한 욕구가 모든 방식으로 충족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슈트라우스는 남독일 태생답게 중후하면서도 선명하고 밝은 파스텔톤의 색채감과 오케스트라 각 파트의 윤곽이 명쾌한 오케스트레이션을 구사하였다. 슈트라우스의 교향시는 관현악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면서 후대 작곡가들에게 교향시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이제 슈트라우스는 그 관현악을 뛰어넘는 단계를 원하게 된다. 이제는 성악이 포함된 관현악 분야만이 그가 이루고 싶은 음악 표현의 역역으로 남겨졌다. 일찍이 슈트라우스는 독창과 합창곡으로 성악분야에서도 서정성, 서사성 모두를 아우르는 작곡 능력을 입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오페라로 그의 음악적 역량이 집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Richard Strauss

05_ 틸 오일렌슈피겔

06_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초판본 속표지

• 05



• 06





2014 울산시립예술단 상설공연

Art in Cinema

2014년 6월 ~ 9월(8월 제외)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울산시립예술단이
시민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
개최하는 상설무대

영화와 시립예술단의
수준있는 공연이 함께
연출되는 복합예술무대

남녀노소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과 감동의
장면 및 주요 OST 감상

울산시민들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오고 있는 울산시립예술단이 2014년 영화와 예술이 함께하는『Art in Cinema』공연을 오는 6월 2일부터 개최하여 무더운 8월 여름 한달 간을 제외한 9월 22일까지 12회 이상의 상설공연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 울산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합니다.

Art in Cinema(아트 인 시네마)

시립예술단 상설공연『Art in Cinema(아트 인 시네마)』는 영화 속에서 예술이 함께 연출 되어지는 공연으로 영화의 장르별 가장 인기가 많았던 베스트 영화를 중심으로 주요 명장면 소개와 감동적이고 인상에 남는 주인공들의 명대사 및 OST(Original Sound track : 영화에 삽입되는 음악) 등, 영화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펼쳐져 즐거움은 물론 공연에서 주는 감동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순간으로 함께합니다.

매주 다양한 영화를 이야기 형태로 풀어가는 공연

『Art in Cinema(아트 인 시네마)』에서는 로맨틱영화에서부터 국내의 첩보영화, 홍콩 영화, 애니메이션, 전쟁영화, 느와르영화 등으로 전개되며, 매주별 6~7편의 영화들과 함께합니다. 이 공연은 전편 영화 상영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중심으로 사회자 김상명(전, ubc 아나운서)이 이야기 형식으로 꾸며나가는 진행방식이며 여기에 간략한 영화의 명장면 감상 및 영화의 삽입곡(OST)을 시립예술단이 춤과 음악으로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사회자 김상명

제6회 방송문화진흥회 공익
프로그램 라디오부문 은상수상
시립예술단 대술콘서트 사회
前, ubc울산 메인 아나운서

영화에 삽입된 모든 음악을 클래식화한 품격있는 연주

영화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OST는 컴퓨터와 같은 전자음원에서부터 뮤지컬을 포함한 대중 가수들의 노래가 주 음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공연에서는 음원의 주요 선율을 토대로 획기적인 작곡과 편곡을 시도해 수준높은 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의 뛰어난 연주를 선보여 다양한 연주편성을 토대로 공연장 내에서 듣는 클래식한 연주회의 감동 그대로를 선사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온가족이 함께 여가생활을...

공연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무대위에 300인치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쉽고 재미있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아이들을 비롯한 가족 전체 연령의 감상이 쉬운 공연입니다. 매주 월요일 만큼은 온가족 모두 울산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해 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하는『Art in Cinema』와 함께 즐거운 여가생활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매주별 프로그램 (진행 및 사회 : 김상명)

제1회 6월 2일(월) 20:00 주제 로맨틱코미디 I 작품 시애틀의 잠 못 드는 밤, 노팅힐, 시티오브엔젤, 러브 액추얼리, 네 번의 결혼식과 한번의 장례식	제2회 6월 9일(월) 20:00 주제 로맨틱코미디 II 작품 세렌디피티, 해리가 세리를 만났을 때, 귀여운 여인, 사랑을 위하여, 섹스 앤 더 시티
제3회 6월 16일(월) 20:00 주제 고전 로맨틱 I 작품 태양은 가득히, 시네마 천국, 해바라기, 졸업	제4회 6월 23일(월) 20:00 주제 고전로맨틱 II 작품 러브 스토리, 남과 여, 화양연화, 잉글리쉬 페이션트
제5회 6월 30일(월) 20:00 주제 첩보물 작품 007, 미션임파서블, 이중간첩, 쉬리, 베를린, 은밀하게 위대하게	제6회 7월 7일(월) 20:00 주제 홍콩, 무협 특집 작품 이소룡 시리즈, 성룡 시리즈, 주성치 시리즈, 황비홍 시리즈
제7회 7월 14일(월) 20:00 주제 홍콩, 무협 특집 작품 아비정전, 종횡사해, 영웅본색, 와호장룡, 중경삼림, 왕가위 감독 베스트	제8회 7월 21일(월) 20:00 주제 디즈니 & 픽사 애니메이션 작품 인어공주, 라이언 킹, 포카혼타스, 알라딘, 물란, 토이스토리, 겨울왕국
제9회 7월 28일(월) 20:00 주제 지브리 애니메이션 작품 이웃집 토도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천공의 성 라퓨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원령공주, 벼랑위의 포노	제10회 9월 1일(월) 20:00 주제 전쟁특집 I 작품 콰이강의 다리, 무기에 잘 있거라, 애수, 아라비아의 로렌스, 플래툰, 지옥의 묵시록
제11회 9월 15일(월) 20:00 주제 전쟁특집 II 작품 라이언 일병구하기, 크라이밍 게임, 신들러 리스트, 늑대와 춤을, 태극기 휘날리며, 웰컴 투 동막골	제12회 9월 22일(월) 20:00 주제 느와르 작품 대부, 언 더처블, 윈스 어 폰어 타임 인 아메리카, 칼리토, LA 컨피덴셜, 카튼클럽

※본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예술전문도서관」 새롭게 탄생



시민들에게 늘 열려있는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추진하고 있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이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전문도서관을 개장했다.

「예술전문도서관」은 기존의 제1전시장 로비에 위치한 전시열람자료실의 공간을 확장하고 시설 보완과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전문 도서와 편리한 정보 공유로 도서관의 이용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재탄생한 예술전문 도서공간이다. 비치도서도 기존의 회관 내 기획 및 대관전시 도록 등 전시중심 도서에서 공연, 전시와 교양 도서로 전반적인 예술장르를 접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회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확대되어진 도서 분류는 공연, 전시, 교양의 3개 대분류와 10개의 소분류로 나누어 음악·무용·연극·공연일반의 공연분야와 미술·사진·서예·전시일반의 전시분야, 그리고 교양일반 등 교양분야로 나누어 예술전문도서 총 2,000권을 비치하였고, 앞으로 전문도서를 지속적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공연시작을 기다리거나 전

시 관람을 하기 위해 회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열람하며 쉬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전문지식 공유로 공연과 전시 관람의 이해를 도와 보다 질 높은 관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롭게 조성된 예술전문도서관은 도서 대출도 가능하다. 도서관에서 담당자와 직통으로 연결하는 전화기가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편안하고 쉽게 원하는 도서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회관은 부족한 전시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복도공간을 상설 전시장 '갤러리 씬'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작가들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조성한 예술전문도서관이 회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쉽게 접하지 못했던 문화예술 전문정보를 충족시켜 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연가이드

PERFORMANCES

어린이 뮤지컬 '책 먹는 여우'

공연정보 5. 2(금) 11:00 소공연장
5. 3(토) 11:00, 13:00, 15:00
공연주최 가람뮤지컬
입 장 료 전석 25,000원
공연개요 어린이 베스트셀러 '책 먹는 여우'를 신나는 노래와 춤이 가미된 뮤지컬로 제작하여 컴퓨터와 TV에 폭빠진 어린이들의 문화를 책과 공연의 문화로 이끌기 위한 작품

다시 불러보는 그 이름 "엄마 그리고 아빠"

공연정보 5. 10(토)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문화예술기획 위드아트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들로 구성된 공연

제7회 어버이 효 문화공연

공연정보 5. 10(토) 14:00 야외공연장
공연주최 화목봉사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문화소외계층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양한 공연을 통해 외로이 지내는 어르신들께 격려와 위로를 위한 공연

2014 어버이날기념 '김영임 효 대공연'

공연정보 5. 10(토) 14:00, 17:30 대공연장
공연주최 ubc 울산방송
입 장 료 V석 99,000원, R석 77,000원
S석 66,000원
공연개요 우리의 소리인 국악과 유교사상인 효를 주제로 제작한 순수 국악뮤지컬로 우리소리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연

제2회 권사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5. 13(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권사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평소에 노래로 위로와 위안을 나누던 권사합창단의 두번째 연주회, 명성가곡 및 한국의 신인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함

울산예술고 교수음악회

공연정보 5. 16(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예술고등학교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예술고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합동 연주회이며, 서울지역의 각 대학교에 출강하는 교수들의 연주로 수준높은 연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기여

제10회 공업탐청소년 예술제

공연정보 예선 5. 17(토) 10:00 야외공연장
본선 5. 24(토) 19:00
공연주최 공업탐청 청소년 문화의집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2014 청소년의 달 행사, 제10회 공업탐청소년 예술제

이유현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정보 5. 17(토)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이유현
입 장 료 전석 20,000원
공연개요 베버 피아노 소나타를 위주로 다양한 색채, 대담한 화성법, 아름다운 멜로디를 선보이는 공연임

제9회 울산YMCA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5. 17(토)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YMCA합창단
입 장 료 R석 20,000원 S석 10,000원
공연개요 틀에 짜여진 기존의 고전적 합창연주에서 벗어나 시대와 격조에 맞는 편곡으로 수준 높은 합창과 다양한 악기들과의 어울림을 선사하는 공연

제5회 울산 피아노아카데미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5. 20(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피아노아카데미
입 장 료 전석 10,000원 (학생 5,000원)
공연개요 2011년 10월 울산지역 교수와 강사, 울산대 음악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창단, 매년 2회 정기연주회를 가진다.

제5회 브리오 플루트 색소폰앙상블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5. 22(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브리오 플루트 · 색소폰앙상블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창단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브리오 플루트 · 색소폰 앙상블의 제5회 정기연주회

가족과 함께하는 아코디언 · 기타 · 우쿨렐레의 밤

공연정보 5. 24(토)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챔버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본 단체는 울산 지역의 음악학원장 및 전문연주자로 구성 울산지역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클래식 음악을 통해 울산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자 함

제6회 오퍼스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5. 25(일)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오퍼스 청소년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클래식을 통해 울산시민 및 초·중·고등학생의 정서함양 및 클래식 의 알리고자 함

어린이 뮤지컬 “백설공주와 난쟁이”

공연정보 5. 30(금) 11:00, 14:00, 16:00
 5. 31(토) 11:00, 14:00, 16:00
 6. 1(일) 11:00, 14:00 소공연장
공연주최 동그라미그리기
입 장 료 전석 25,000원
공연개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명작동화 “백설공주”를 각색하여 노래와 안무, 배우 연기를 통한 뮤지컬로 제작

제12회 울산 어린이 합창페스티벌

공연정보 5. 31(토)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국제와이즈멘 울산클럽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 유일의 어린이 합창제로 열 두번째 어린이 합창페스티벌 개최로 울산의 어린이 합창단의 교류를 통해 음악회 질적 향상에 공헌하고자 함.

전 시 가 이 드

E X H I B I T I O N

제18회 울산미술대전 초대 작가전

전시기간 5. 1(목) ~ 5. 6(화), 6일간
전시장소 제2,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술협회 (최명영)
전시내용 울산광역시미술대전 8개 부문의 초대작가, 추천작가, 운영위원들의 작품 전시로,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문인화 등 미술작품 총 130여점 전시

김형수 사진전

전시기간 5. 8(목) ~ 5. 13(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개인 (김형수)
전시내용 수년간 틈틈이 촬영한 울산 근교를 비롯해 전국의 아름다운 풍경 및 일상을 담은 사진작품 35여점 전시

국제 한지 미술전

전시기간 5. 15(목) ~ 5. 20(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영담한지미술관 (김희중)
전시내용 해외 현대작가 12명과 한국 현대작가 12명이 참여하여 한지라는 전통적 소재에 동·서양의 예술적 표현의 미술작품 30여점 전시

울산파스텔화 창립전

전시기간 5. 15(목) ~ 5. 20(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파스텔화 (김승심)
전시내용 파스텔화를 울산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 창립한 울산파스텔화에서 정물, 풍경, 인물 등을 순수 파스텔로 표현한 작품 30여점 전시

울산청록회 회원전

전시기간 5. 16(금) ~ 5. 18(일), 3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청록회 (김창곤)
전시내용 울산청록회의 두 번째 정기전으로 회원들이 정성들여 가꾼 분재 및 야생화 100여점을 전시

제18회 울산광역시미술대전 I·II부

전시기간 5. 21(수) ~ 6. 3(화), 14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술협회 (최명영)
전시내용 지역 신진작가 발굴 및 울산 미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울산광역시미술대전의 작품을 공모·접수·심사하여 한국화, 서양화, 조각, 수채화, 서각, 서예, 문인화, 공예(디자인) 8개 분야의 작품을 심사하여 입상작품 전시

05_대공연장

01	· 교향악단 기획연주회 5.1(목) 20:00	01	
02		02	· 어린이 뮤지컬 ‘책먹는여우’ 5.2(금) 11:00
03	· 합창단 기획공연 5.3(토) 20:00	03	· 어린이 뮤지컬 ‘책먹는여우’ 5.3(토) 11:00, 13:00, 15:00
04		04	
05		05	
06		06	
07		07	
08	· 스위트콘서트 5.8(목) 20:00	08	
09		09	· 북앤티크콘서트 5.9(금) 20:00
10	· 김영임 효 대공연 5.10(토) 14:00, 17:30	10	· 다시볼러보는 “엄마 그리고 아빠” 5.10(토) 19:00 야외공연장 · 제7회 어버이 효 문화공연 5.10(토) 14:00
11		11	야외공연장 · 2014 청소년어울림마당 개막축제
12		12	
13		13	· 제2회 권사합창단 정기연주회 5.13(화) 19:30
14		14	
15		15	
16	· 교향악단 기획연주회 5.16(금) 19:30	16	· 울산예술고 교수음악회 5.16(금) 19:30
17	· 제9회 울산 YMCA합창단 정기연주회 5.17(토) 19:30	17	· 이유현 피아노 리사이틀 5.17(토) 17:00 야외공연장 · 제10회 공업탐청소년예술제 예선
18		18	
19		19	
20		20	· 제5회 울산 피아노아카데미 정기연주회 5.20(화) 19:30
21		21	
22		22	· 제5회 브리오플루트 & 색소폰 앙상블 정기연주회 5.22(목) 19:30
23	· 무용단 기획공연 5.23(금) 20:00	23	
24		24	· 가족과 함께하는 아코디언 기타, 우쿨렐레의 밤 5.24(토) 19:30 야외공연장 · 제10회 공업탐청소년예술제 본선
25		25	· 제6회 오퍼스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25(일) 19:30
26		26	
27		27	· 모닝콘서트 5.27(화) 11:00
28		28	
29		29	
30		30	· 백설공주와 난장이 5.30(금) 11:00, 14:00, 16:00
31	· 제12회 어린이 합창페스티벌 5.31(토) 19:00	31	· 백설공주와 난장이 5.31(토) 11:00, 14:00, 16:00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05_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05_ 전시가이드

	1전시장	2전시장	3전시장	4전시장	상설전시장	야외전시장
01	· 동·서양 디지털 미술展 5. 2(금)~5. 9(금) 8일간	· 제18회 울산미술대전 초대 작가전 5. 1(목)~5. 6(화) 6일간		· 제13회 울산미사랑작가회전 4. 30(수)~5. 6(화) 6일간	· 올해의 작가 개인전 – 김이란展 5. 1(목)~5. 30(금) 30일간	· 전국야외조각 초대展 I 부 2. 6(목)~5. 31(토) 115일간
02						
03						
04						
05						
06						
07	· 국제 한지 미술전 5. 15(목)~5. 20(화) 6일간	· 울산청록회 회원전 5. 16(금)~5. 18(일) 3일간	· 울산파스텔화 창립전 5. 15(목)~5. 20(화) 6일간	· 김형수 사진전 5. 8(목)~5. 13(화) 6일간		
08						
09						
10						
11						
12						
13						
14						
15	· 제18회 울산광역시미술대전 I 부 5. 22(목)~5. 27(화) 6일간					
16						
17						
18						
19						
20						
21	· 제18회 울산광역시미술대전 II 부 5. 29(목)~6. 3(화) 6일간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링블링한 ART스타일 완성!

Always, with you

항상 당신의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소박한 여유
가슴 속에서 퍼져 나오는 감동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함께 합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매달 마지막 수요일)

— 공연할인

뒤란(실내공연) 및 예술단 공연 50% 할인,
대관공연 할인 권고

— 전시장 야간개장(오후 10시까지)

갤러리 ‘섬’, 제1전시장(회관기획전시)
대관전시 권고

문예회원에 가입하면 공연정보와 할인혜택이 솔~솔~

회원의 종류

가입 기간	청소년회원	일반회원	가족회원 (4인기준)	단체회원 (10인기준)
1년	1만원	2만원	4만원	10만원 (1인추가시 1만원)
3년	2만5천원	5만원	10만원	25만원 (1인추가시 2만5천원)
5년	4만원	8만원	16만원	40만원 (1인추가시 4만원)
10년	7만5천원	15만원	30만원	75만원 (1인추가시 7만5천원)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셔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 인터넷 가입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울산문화예술회관
농 협 317-8245-8245-41 / 울산문화예술회관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원혜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공연 30% 할인 (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단체 1매)
-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공연 초대 (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단체 1매)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이내 할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등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울산시립합창단
가정의 달 기념 기획공연

칸타타 **구미호**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4. 5. **3**(토) 오후 4시